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이번주 독서: 이준범 베드로, 김나영 안나

다음주 독서:

이번주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는 월프레드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조은경 수산나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조성익 토마스모어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 오늘의 묵상

이냐시오 성인은 사람들에게 피정 지도를 하려고 『영신 수련』이라는 책을 썼지요. 그 책에서 겸손의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완전한 겸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겸손은 하느님께 존경과 영광을 드리고자 부귀보다는 가난을, 명예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업신여김당하기를, 세상 것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처럼 천대받기를 바라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완전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얼마나 겸손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 그들은 가난보다는 세상의 부귀를, 업신여김당하기보다는 인사받고 존경받기를, 천대받기보다는 지혜롭고 현명한 스승으로 대우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집회사에서 하느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거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악의 잡초’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3,20,28 참조). 교회의 전통 가르침인 『준수성범』에서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나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늘 분노와 질투를 드러낸 이유를 금방 알게 됩니다. 분노와 질투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겸손(humilitas)의 어원은 ‘땅’(humus), 곧 ‘흙’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존재는 아무리 잘난 척해 보아야 ‘흙덩이’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하느님께서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흙의 먼지’로 흩어지고 말 존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겸손’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러니 땅처럼 모든 이를 밟아래서 받쳐 주고 품어 주는 큰마음의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마음속 분노와 질투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342

교무금: \$ 20

합 계: \$ 362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31 주일]

2011 년 10 월 29 일

<제 1 독서> 말라키 예언서, 1,14 -2, 2, 8-10

<제 2 독서> 테살로니카 1 서, 2, 7-9,13

화답송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뎌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 알렐루야.

복 음

마태복음, 23, 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4 봉헌: 44 성체: 151 파견: 423



생명의 말씀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상영되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부터 5년 동안이나 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교장과 교사가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한 끔찍한 이 사건은 성폭행 자체에 대한 충격을 넘어 참된 스승의 부재 때문에 더 실망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초점이 참 스승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스승이 오히려 학생들을 개인의 사욕과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많은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많아도 참 스승은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스승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욕설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말로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하였고 소경임에도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서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스스로 높이지만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제로, 신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있지만, 하느님과 나 자신의 양심 앞에서는 오늘 복음의 율법학자들처럼 스승으로서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스승은 누구이시며 어디에 계실까요? 참된 스승은 진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며 그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참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직 길, 진리, 생명이신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참 스승이십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스승, 선생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체화하여 스승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천상 스승의 배움터인 성체 앞에 머물러 참 스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아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스승이신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닮은 참 제자로다...”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들, 성모회장님, 구역장님들은 친교 후에 성당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 미사 후에 공동체 식사 및 신부님 생신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 각 구역에서는 구역모임이 있기 1~2 주전에 미리 사목회장에게 알려주시면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교리

성 사 생 활

▶ 성사의 개념

성사는 인간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하고, 그분 은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구원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존재와 그분 삶에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생, 말씀과 행적,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라는 삶 전체를 통해 인간에게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느님의 성사'로 제시됐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하느님 신비가 교회를 통해 가시화되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처럼 성사는 인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 성사의 종류

세례성사는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 교회 구성원이 되는 성사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와 하나 돼 하느님과 이웃과 일치를 이루는 성사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며 화해하는 성사다. 견진성사는 교회와 더욱 완전하게 결합해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사다. 혼인성사는 혼인하는 부부가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통해 성덕에 나아가도록 돕는 성사다. 성품성사는 하느님 부르심을 받아 교회와 그 구성원을 사목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사다. 병자성사는 병자들 치유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사다. 혼인성사는 원칙상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앞선 혼인이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있다. 병자성사는 치유 은총이 필요할 때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 성사 생활의 중요성

우리는 참다운 성사 생활을 통해 하느님과 그분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는 인류 구원의 신비가 교회의 성사 안에서 가시화되고 현재화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사를 제정하셨고 성사를 집전하시며 성사를 통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사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